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사임 임박’ 관측

건강이 나빠져 물러날 가능성을 시사했던 프란치스코 교황(86)이 지난 28일 이탈리아 라퀼라를 방문해 지진 사임한 옛 교황의 겸손함을 칭송했다. 일각에선 교황 사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부터 이틀간 라퀼라 산타마리아 디 콜레마조 성당을 방문했다. 중부 도시 라퀼라에는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사임한 첫 교황 펠레스티노 5세(1215~1296)의 유해가 안치돼 있다. 교황 임기는 종신제여서 선종 전까지 재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펠레스티노 5세는 즉위 5개월 만인 1294년 12월 교황 직을 내려놨다. 중세 작가 단테는 ‘신곡’에서 ‘겁을 먹고 큰 지위를 버린 사람’으로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황청 관영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펠레스티노 5세는)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겸손에서 오는 힘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펠레스티노 5세 묘역에서 기도한 후 라퀼라 광장에 모인 수천 명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세상 눈에는 겸손한 사람이 나약한 패배자로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 뜻을 아는 진정한 승자”라고 강론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라퀼라 방문 계획을 발표한 뒤 조기사임설이 나오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사임은) 전혀 생각해보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2016년 역대 교황 중 두 번째로 지진 사임한 베네딕토 16세를 언급하며 “훌륭한 본보기”였다고 여지를 남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펠레스티노 5세를 칭송하자 언론들은 “교황의 이번 행보에는 조만간 사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며 “다시 한번 조기 사임 가능성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교황은 라퀼라 방문 전날 한국 유홍식 추기경을 비롯한 새 추기경 20명에 대한 서임식을 거행했다. 이례적으로 휴가철인 8월에 서임식을 한 것은 1807년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교황 선출회의(콘클라베)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 132명 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인물은 83명(63%)이 됐다. 차기 교황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새 추기경을 추가로 임명해 자신의 후계 구도를 마무리한 뒤 사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힌 예수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었고 야고보와 유다의 형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요 단서가 됩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일에 증인이로다(행 2:31-32)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성경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곧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구분된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요 10:30)하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Lord)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의 금지요 자부심인 율법과 규례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요 8:42),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



희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 시라(요 8:54),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예수가 그렇다고 하니 그저 동의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 2:22) 제자들의 자서전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기 전에는 구약도 생전 예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살아나신 예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9)’는 말씀이 실체가 된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선명하고 명확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은더 이상 관념과 교리가 아니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실체가 되니 하나님도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실체가 되니 그분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14:2)’는 예수의 말씀이 사실이요 현실이니 예수가 승천하여 지금 계시는 그 나라, 곧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판타지(Fantasy)가 아니라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 지금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검증함으로써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증거입니다.

-이규복 목사-
(풀러턴 아가페교회)
(818) 462-1981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주택 / 아파트 / 상가 / 사업체 전문

-REALTOR 데이빗 전

T.714.309.2355